

# 민족 대 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오는 22일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65돐이 되는 날이다.

이 시각 우리 거레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민족통일전선 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된 부강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국적완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성번영을 이루려는 북파·남·해외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공동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결성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이다.

해방후의 복잡다단한 정세는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각계층에 국력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력을 실현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안팎의 정세와 민족통일전선실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35(1946)년 7월 22일

서 북조선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해방후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무어주시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널원에 따라 김일성주석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초대의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주석께서는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출로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주체38(1949)년 6월 북파·남·해의 70여개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 애국력량의 총집결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도록 하시였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로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여오신 민족대단결사상과 통

일전선로선의 빛나는 결실로서 새 사회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확대강화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넘원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과 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치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북파·남·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애호적인 통일전선단체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여 우리 민족에게 통일위업수행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었다. 또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공고하고 힘 있는 대중적인 통일전선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는 사상을 청명하시고 통일전선의 모든 활동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석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단합함에 대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주석께서 제시하신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여 우리 민족에게 통일위업수행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었다. 또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00년 6월 령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신 것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루하신 특기 할 위대한 공적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전선의 도도한 흐름에 주저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이 땅 우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최광혁

## 《조국통일3대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자》

### 범민련 남측본부가 성명 발표

지적하였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특히 남조선에서 친미독재 《정권》의 반통일정책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

들의 투쟁이 힘있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조국통일3대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어있다고 하면서 온 민족이 6.15공동선

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어나서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친미굴종에 물젖은 현 《정권》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동족파의 전쟁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대처하고 있다.

있다고 규탄하면서 성명은 이들에게 차례질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모두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6.15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6.15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해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를 위한 북남협상진행

법과 그에 따른 부동산정리안이 당시자간 계약과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느니, 현대의 독점권과 북남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니 하며 생여지기를 썼다. 또한 그 무슨 《법적, 외교적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남측부동산들에 대한 물수, 동결조치제와 관광제개를 위한 《3대조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재산정리를 방해해나섰다.

이에 대해 남측당국관계자들은 협상에 함께 참가한 민간기업가들이 말도 못하게 하면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출발하는 각계층인민

단으로 하여 빛어진것이라는 것과 지난 3년동안 관광중단으로 공화국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데 대해 상기시키고 그에 보상할것을 남측당국에 요구하였다.

공화국의 이번 조치는 남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남측당국에 대한 물수, 동결조치제와 관광제개를 위한 《3대조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재산정리를 방해해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관계자들은 민간기업가들

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게 억누르면서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북측은 이들의 무모하고 불순한 태도를 강하게 추궁하면서 남측기업가들이 돌아가 더 연구하여 립장이 서면 다시 만나 협의를 가질것이며 만일 남측이 7월말까지 립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 미션으로 남측부동산들을 법적으로 차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측당국관계자들은 돌아가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경로로 다음번 협의와 관련된 립장을 알려오겠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 《대북적대정책 전면 전환하라》

(한) 미련합종련종단, 고체문제해결 등을 요구하는 《8.15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실현을 위한 협력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제과로서 당국은 〈한반도평화를 실현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행을 던져주는가 하면 일본왕을 《천황》으로 개여울리며 조상모시듯 굽신거렸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한 티명박이고 보면 결코 놀라울지도 아니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긴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이제 동심에서라도 배워야 한다.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진

리를 내걸고 국도의

반공화국적대감을

고취하였다.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조국

이날 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를 계기로 하여 리명박(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적전환을 촉구하고 위험천만한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종학교, 고등학교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근과 반수가 일본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집권후 한파출을 이은 동족을 《주적》이라 고아 대며 목에 꾀대를 돋구어 왔다.

여지없이 드러났다.

실은 그들의 반공화국대결

온 민족이 지지 환영하는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

정하고 그 리행을 거부해

온 남조선보수당국은 반민

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

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협력으로는 남북관계

를 개선할수 없다.

느니 뛰니 하면

서 북남관계를 전면대결과

전쟁경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연지대에 있는 저들의 술한 군

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과 주변도로의 안내간판, 담장들에

총탄을 마구 쏘아

대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

하였다.

그 무슨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용하

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완전차단한것도,

특대형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

호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

사건을 조작하는 《천추의

이니,

《잃어버린 10년》을 비

셔서 벼랑에 뛰어나기 위한

복침전쟁도발에서 찾았다.

리명박당이 바로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민족앞에 나선 사

활적인 과정이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반공화국대결을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1950년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리승만과 쇼도당은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벼랑에 뛰어나기 위한 출로를 찾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반공화국대결을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적화와 단합의 파괴자, 평화와 통일의 악랄한 방해자인 남조선보수파당에 대한 물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리명박(정권) 심판투쟁에 총궐기해나서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민족을 등지고 혁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뿐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적화와 단합의 파괴자, 평화와 통일의 악랄한 방해자인 남조선보수파당에 대한 물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리명박(정권) 심판투쟁에 총궐기해나서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민족을 등지고 혁

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그

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뿐

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적화와 단합의 파괴자, 평화와 통일의 악랄한 방해자인 남조선보수파당에 대한 물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리명박(정권) 심판투쟁에 총궐기해나서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민족을 등지고 혁

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그

# 불안과 공포만을 가져오는 《안보교육》

남조선의 국방부가 10월부터 서울지역에 있는 서초에 비군훈련소를 사회에 개방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실란사격을 비롯한 『안보체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안보체험교육』은 만 16세의 미성년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실시되며 이에 따른 탄약과 장비는 국방부가 선정한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한다고 한다.

군부당국은 이를 시험적으로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떠들고 있다.

남조선 군부당국의 예비군 훈련장개방동이 『안보의식』의 간판밑에 사회전반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인들까지 북침전쟁의 총알 밭으로 써먹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어 남조선 사회 각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과 사회 각계는 이를 두고 『군에서 관리해야 할 실란이 민간단체에 판매될 때 분실될 수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수로 오발하거나 정신이 상 참가자가 고의로 탄약을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조선의 군부당국이 위탁 관리 민간단체와의 합의 각서에서 『사고예방대책과 사고책임 임한계, 총 및 실란분실방지 대책을 명시』할 것이라고 떠

들고 있지만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계와 언론들의 일치한 평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남조선 군내에서는 각종 사고와 질병, 심리적 압박 등으로 하여 사망자와 자살자, 탈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종기류에 의한 사고와 범죄사건들이다.

지난달 17일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한 해병대의 사

병들이 정상운행 중에 무려 10분간 걸쳐 대공사격을 가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판에 남조선국방부가 북침전쟁준비에 미친 나머지 훈련장을 개방하고 종

# 핵 위협의 장본인

고 오늘날까지 해마다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들을 남조선에 계속 파견하고 있다.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단시키고 핵위협을 단계적으로 증대 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핵없는 세상』,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함선들의 빈번한 남조선 출입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후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화국의 자위적 역제력을 당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더욱 악랄해졌다.

2002년 3월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50년 조선전쟁시기부터 원자탄을 사용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

지난 6월초 본사취재단은 로씨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찾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 쉐레메트예보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경이었다.

비행장에서 로씨야고려인 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 위원장 김 펠렉스와 부위원장 석 세르게이를 비롯한 여러 명의 동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을 만나는 순간 10시간이 넘는 긴 여행과 조국과 5시간의 시간차이로 하여 오는 퍼로감도 가물없이 사라지고 오래간만에 정다운 혈육들을 만난듯 무동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었다.

미중나온 동포들도 로씨야 방에서 조국동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 우리의 손을 잡고 놀을 줄 몰랐다.

그들 가운데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이미 낯을 익힌 동포들도 있었고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구연인 사람들은 구연이어서 반가웠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게 대번에 정이 통했다.

같은 피줄을 이었다는 하나님의 리유만으로도 이렇듯 반갑고 단번에 정이 쑥쑥 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 \* \*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시 바삐 동포들을 만나보고 싶어 로씨야고통련청사를 향해 걸

# 이 역에서 조선민족의 궁지를 안고 (1)

을 떠났다.

모스크바의 날씨는 평양의 날씨와 비슷해 낮에는 좀 덥다고 하지만 아침기온은 선선했다.

고통련청사는 모스크바시 로스ansomskaya거리 톰4-5구 획의 아파트 1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국제 고려인 통일련합회》라고 조선어와 로씨야어로 쓴 현판이 멀리에서도 또렷하게 안겨오는 정문앞에서 머리가 회색회색한 리게파로 로씨야고통련서기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팔을 벌리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청자 안에 들어서니 조국의 모습을 담은 여러 점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 조선어와 로

와 잡지들이 책장마다 가지 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고통련청사는 사무실과 면담실 그리고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홀을 비롯하여 전실을 제외하고 6개의 큰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넓은 홀 정면 벽에는 늘 경애하는 김 일 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백두산에 함께 서계시는 대형림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면담실에도 두분께서 로씨야의 동포들을 접견하고 찍으신 2상의 대형기념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 펠렉스위원장과 안창진부위원장은 비롯한 조국의 모습을 담은 여러 점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 조선어와 로

씨야어로 된 우리 나라 도서



동포들의 모임이었다.

고통련성원들과 동포들도 있는데는 년로보장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기업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그날만은 어떻게 하나 시간을 내여 거의 모든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한다는 것

이였다. 한 사람한 사람 돌아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 우리는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 고통련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1993년에 조직된 로씨야고통련은 로씨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화목과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해외동포들의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김 펠렉스위원장은 로씨야고통련이 그동안 동포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많은 동포들을 조직해 둑어세우고 조선민족의 냉을 고수하기 위한 활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스레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고통련 사업의 하나가 한주일에 한번씩 가지는 고통련성원들과

모임은 특별한 격식이 없이 동포들이 자연스레 둘러앉아 《통일신보》와 《통일화보》, 《금수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신문, 잡지, 도서들을 읽어보며 조국소식을 나누거나 그동안 자기들의 활동과 생활에서 있은 이야기들을 교환하는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 동포들사이의

화목이 두터워지고 조국번

이는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도 많이 모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절과 2월명절 그리고 설명절을 비롯한 민속 명절에는 모임이 더 성대하게 벌어진다고 한다.

고통련조직에는 민족예술과 민족음식, 민족유적과 체육 등 각 분야를 담당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직사업에 의해 어떤 날에는 민족음식 품평회를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민요자랑과 민족춤판을 한바탕 펼치기도

한다고 김 조야 고통련

녀성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안향진부위원장이 편집발행을 맡아 진행하는 인터네트잡지인 《국제고통련기판지 불례전》 《통일》도 이들의 큰 자랑거리였다.

우리는 현관앞에 나가 우

랑진체구에 걸맞는 큼직한 대통을 입에 물고 막나게 연

기를 들이키는 김 펠렉스위

원장과 몇몇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김 펠렉스위원장은 모스크

바의 도모제도보시병원의 의

과 장애인 등록증을 물론

로씨야사람들속에서도 권위

있는 의학박사였다.

금연, 금주는 의학자들의

첫째가는 주장인데 권위 있는

의학박사인 위원장선생과 담

배대통이 어린가 잘 어울리

지 않는 것 같다는 우리의 통

행을 듣고 말하였다.

《선생이 하라는 것은 그대

로 하지만 선생이 하는대로

는 하지 마시오.》 이것이 차

기자 환자들에게 내리는 처

방증의 첫번째 처방이라는 것

이었다.

손짓, 눈짓까지 섞어가며

하는 그의 유쾌한 말솜씨에 보였던 사람들 모두가 따라웃었다.

그의 기지 있는 유모아도 재미있었지만 멀리 조국에서 찾아온 남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마음쓰는 김 펠렉스위원장의 심정이 헤아려져 우리의 가슴은 뭉클했다.

《조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보니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김 성주석님께서 나라없는 백성이 살자 살아있어도 상가집과 만도 못하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로씨야에 와서 살기 시작한지도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 여러



세대가 바뀌었지만 우린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희망에 넘쳐 살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국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항상 조국에 있습니다.》

홍분에 겨워 말하는 사이에 김 펠렉스위원장이 손에 든 담배대통의 불은 꺼져버린지 오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한껏 달아오른 그의 심장의 열기가 우리의 가슴에 후덥게 미쳐오는 것 같았다.

박영철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 나가노현민회의 대표단 단장이 강조

신심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에게 인사를 보내는 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께서 경강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통성변영 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일본에서 올해 대지진과 해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이 난 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위문금을 보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일본정부가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대처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광복기인 김일성주석의 혁명한 영도에 대한 뜻을 담은 일본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대처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그는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제재책동에 대해 매달리고 있다.

정세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일본정부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두 나라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인한다.

본사기자

## 《특색 있는 공연》, 《우아하고 황홀한 조선의 예술》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중국관중들의 찬사이 목소리

고 재청을 요구하였다. 이런 광경은 국장이 생겨 처음이다.

공연을 관람하고 조선에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다.

집전시 사전전람관에서 일하는 왕소전은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올라 춤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조선의 예술을 매우 사랑한다.

조선의 예술은 우아하며 활활 흘러. 세변씩이나 공연을 보았는데 언제나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공연은 관중들에게 힘과 즐거움, 기쁨을 주었다.

종목들의 내용이 풍부하다.

나는 이전부터 조선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조선의 노래들을 즐겨 듣고 부르고 한다.

앞으로 이처럼 홀륭한 예술단이 계속해서 공연해 주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 수기

## 강성대국이 보인다 (5)

### 평양 양말 공장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공장이 이렇게도 천지개벽 할 수가 있다니 말인가.

내가 처음으로 평양양말공장을 찾은 것은 우리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기 이전 시기였다. 그때 공장의 양말생산설비들은 당시로서는 그만하면 펜답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꾸려진 너자랑양말장을 돌아보니 종전설비는 훈적조차 없고 완전히 최첨단설비들로 현대화한 것이다.

수많은 제작기구들이 틈틈히 설치하는 로동자 몇 명밖에 필요없는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 인민들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장군께서는 조선민족의 양말문제를 풀어주면서 평양양말공장을 현대적으로 일신하도록 하시고 편의로운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시었을뿐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었다.

그

## 청년력기선수들이 이룩한 성과

—2011년 세계 청년력기선수권대회—

얼마전 말레이시아의 빙남에서 진행된 2011년 세계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국의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중국, 로씨야,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28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공국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조국의 영예를 높힐 애국의 일념을 안고 평시에 높은 기운을 펼쳐온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 경기 경기에서 총합 156kg을, 팀정심선수는 남자 63kg 경기



금메달을 쟁취한 엄윤철, 림정심선수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세나라시기에 민족악기들로 구성된 고취악이라고 불리우는 군악대가 있었다.

양악기로 구성된 군악대로서는 1900년 북군시위원대 군악대가 조직된 것

이 우리 나라에서의 최초의 그것이다. 당시 리조봉

건정부에서는 로씨아의 니꼴라이황제의 대관식에 참가하여 군악대를 창설하여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 와 있던 쇠아공사 웨베르의 주선으로 엑스트라는 도이췰란드 사람을 지휘자로 초청

## 우리 나라 군악대의 시조

다. 군악대는 조직된지 6개월 만에 첫 연주회를 진행하여 호평을 받은 후 국가적인 의례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서 연주활동을 진행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영국의 『런던 타임스』에는 『조선북군』에서 제일 자랑할

하는데 이때 문인지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 경자가 들어가던 해에 유형적인 사건, 사변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고 한다.

때문에 삼복더위는 이

러한 살살하고 강렬한 기

운을 상징하고 있는 경자

까지도 엉드릴수밖에 없을 정도로 찌는듯 하고

숨막히는 무더위를 의미

한다고 한다.

올해의 초복은 7월

14일, 중복은 7월 24일,

말복은 8월 13일이다.

본사기자

을 해 7월 14일은 삼복의 첫 시작인 초복이다. 옛 문헌인 『동국세시기』에는 삼복과 관련한 상세한 풍속들이 기록되어 있다.

삼복날 풍속에서

기본은 개를 잡아 끌고

아고 단고기죽을 먹는

것이다. 『동국세

시기』에는 개 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사로,

개를 잡아 꽈리를 넣고 꽈

인것을 개장이라 한다. 막이

나 죽죽(참대순)을 넣으면

좋다. 또 개장국에 꽈

주가루를 넣고 밥을 말아서

도 강한 선풍기바람을 오래

동안 쏘이게 되면 체온조절

이 이상이 생겨 체크기를 하

게 되므로 체온조절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로약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선풍기

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조

금 열어놓고 벽쪽으로 향하

게 하여 벽에 부딪쳤다가 돌

아오는 자연풍에 가까운 상

태의 바람을 맞는것이 좋으

며 1시간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민족은 혁사적으로 발전된 차문화를 향유해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그러나 조조말엽 토착마시는 풍습은 차마 쇠퇴되어 전라도지방에 국한되게 되었다.

차(록차)는 품이 많이 드는 음료이다. 이로부터 불교 사찰의 승려들이나 랑만귀족들마저도 점차 차를 멀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봉건통치 배들은 차세를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이 과정에 차(록차)마시는 풍습이 차름 식어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인구와 경작지는 줄어들었고 얼마 안되어 『인조반정』(1623년)과 『리팔의 한』(1624년) 등 국내 소요가 그칠 새 없이 일어났다. 거듭되는 내외의 소요는 사람들에게 차를 마실 정신적여유마저 앗아갔다.

근래에 들어와 리조정부는 차의 유익성을 깨닫고 차제 배에 나섰다. 1883년 농상사(農商司)에서는 각도에 황제는 우리 나라의 차차원을 랙탈대상으로 되었다. 오자끼 이찌조라는 일본인은 차나무가 무성한 전라도 보성군에 기여 들어와 사금을 채취하던 중 광주 무등산기슭의 중심사군처의 아생발을 소유하게 되어 일본식의 『무등차원』을 만들어 차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시기 차나무는 랙탈대상으로 되었다.

1905년 『을사

5조약』이 날조된 후 조선군

대가 해산되고 『한일합병』

이 강요되면서 『리왕직양

대』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게 되었다. 당시 성원은 52명이었는데

일제의 계속되는 탄압과

파

증한 세정부담으로

하여 결국 1919년 3월에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으며 그후 『경성양악대』라는 민간 양악대로 되었다가 1923년 경에 완전히 해산되었다.

제: 아버지는 하루에 꽉

두시간씩 아들에게 수학

을 가르치는 일파를 어기지

않았다.

『가리키다』는 어떤 방

향이나 대상에 대하여 손

짓을 하거나 무엇으로 짚어보이면서 알리는것을 의미한다.

제: 로인이 가리키는 감나무를 바라보니 감이 가지마다 주령졌다.

본사기자

## 우리 민족의 차문화 (9)

와 차설차의 재배를 위한 조사를 진행 할 것을 지시했다.

1905년에는 농상공부가 각도에 『식목조례』를 하달하여 해마다 청명을 계기로 차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한편 근대시기 우리나라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차가 생산소비되었다. 대표적인 차로서는 『백운우판차』와 『금룡원산차』가 있다.

『백운우판차』란 전라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사는 리한영이라는 독지가가 만든 차제품을 말한다.

『금룡원산차』의 금룡은 강진고을의 옛이름이 고월산은 월출산의 약칭이다. 다시 말하여 강진의 월출산에서 나는 차라는 뜻이

다. 『백운우판차』 역시 강진의 월남리의 백운동에 있는 웃판산에서 차라는 차나무잎을 가공하여 만든 차라는 뜻이다.

리한영은 일제가 만드는 기계식차제품생산에 판

계없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차생산방법으

로 차를 만들어 강진주변과

라주일대에서 팔았다.

하여 『백운우판차』와 『금룡원산차』는 오래동안 명차로 소문이 났다. 꼭우(4월 20일)에서 텁(5월 5일) 사이에 차잎을 따들인 다음 솔에서 쪘서 손으로 비벼낸다

황해북도 장풍

군 월고리에 있

었던 현화사는 고

려대왕인 혜종이

생전에 불우하였던 부모님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1018년부터 1020년 사이에 막대한 국력을 끌어들여 건설한 큰 규모의 절이였다.

현재 건물로서의 현화사는 없고 7층탑, 비, 당간지주를 비롯한 일부 석조구조물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건축물들은 우리 인민의 술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당대의 뛰어난 대표작들이라 할 수 있다.

현화사 7층탑은 1020년에 세운 것으로서 단층기단우에 7개 층의 탑몸을 올리고 로반과 복발로 된 탑머리를 올린 높이 8.64m의 비교적 큰 탑이다.

기단은 모서리기둥과 사이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사이에 벽돌처럼 다듬은 돌을 다섯

돌기 채웠는데 다른 석탑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체마반침이나 모서리기둥을 각이 지게 하지 않고 물결형곡선으로 처리한 것도 특이한 것이다.

본사기자

『지능』과 『기능』에서

어느 층면이 우세한가에 따라 지능수재와 기능수재로 갈라볼 수 있다.

지능수재는 머리쓰는 능력이 월등한 수재이다.

리승기, 계옹상, 가우스,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이

비범한 지적활동으로 과학 발전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능수재의 기본특징은 첫째로, 비례적 활동능력을 뛰어난 것이다.

기능수재는 기교적 활동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수재이다.

기능수재는 기교적 활동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수재이다.

기능수재와 기능수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능수재와 기능수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다.

지능수재와 기